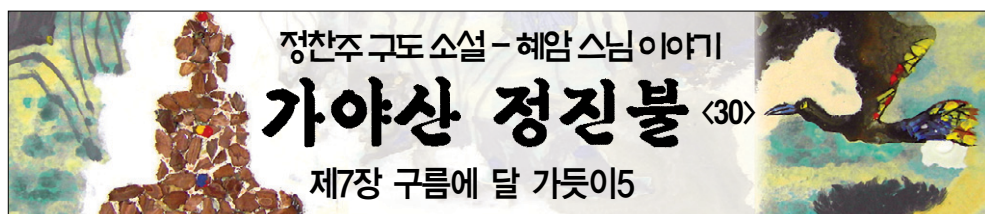


죽을지라도 꼭 해낸다고 결심하면 성공한다



해암은 산철에도 천제굴에 남아 정진하려고 했다. 동안거를 나면서 받은 득력(得力)이 해제 이후에도 성장하게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천제굴에 오는 신도 모두 해암을 보고는 얼굴이 더 맑아졌다고 좋아했다. 그러나 해암은 천제굴을 떠나야만 했다. 천제굴에 머물기를 원하는 수좌들도 있었고, 성철을 친견하고 싶어 찾아오는 신도들이 너무 많았다. 신도들이 계속해서 천제굴로 와 속세의 그림자를 떨어뜨려 놓고 갔다.

도반 격인 서용, 청담, 향곡 등이 자주와 법담을 나누었고, 성철이 기대했던 비구니 인홍과 혜춘은 물론이고 불교신자인 장관과 장군도 성철의 설법을 듣고 갔다. 산철에 사는 성철의 속가 식구들까지 들렀다가 불연(佛緣)을 맺고 갔다.

그날도 해암은 성철을 찾아온 마산신도들을 피해 은봉암으로 올라갔다. 은봉암은 성철이 천제굴을 짓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암자였다. 은봉암은 벽발산 7부 능선쯤에 있었다. 은봉암에서는 남해가 한눈에 보여 산자락에 숨은 천제굴과 달리 전망이 시원했다.

해암이 거대한 입석 같은 성석(聖石)으로 다가가 합장하자 은봉암 주지스님이 나와 반겼다.

“해암스님, 무슨 일로 올라오셨습니까?”

“은봉암 법당에서 좌선이나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하하. 아예 은봉암으로 오셔서 사시지요. 공부 잘하는 스님 같은 분이 은봉암에 계시어야 합니다.”

“제가 뭘 잘 산다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스님들도 좋은 분들입니다.”

“아닙니다. 전쟁이 나는 바람에 암자가 숙박업소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공부하는 스님은 없고 피난 다니는 스님뿐입니다.”

목숨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는 자신 자책

은봉암 주지는 수행풍토가 변한 것을 전쟁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성철스님 같은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스님들은 전쟁에서 화를 면하고 살아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까?”

순간 해암은 부끄러웠다. 자신에게도 그런 면이 조금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참선수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면 목숨이 안전한 남해안 지방의 절들에서 안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행을 게을리 하는 것은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들이나 이리저리 피난을 다니는 백성들에게 죄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스님께서 은봉암에 계시 때부터 3천배를 받았는데, 더 철저하게 정진하시기 위해 3천배를 받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성철이 신도들에게 요구한 불전(佛前) 3천배는 은봉암에서 시작했다고 봐야 옳았다. 수행자로서 자신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은봉암에서 시작한 불전 3천배는 천제굴에서

성철식의 화두처럼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해암은 법당으로 들어가 자신의 처지를 자책했다. 수행자에게 목숨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민망하고 어이가 없었다.

“아, 나는 아직도 공부하는 데 죽을 각오가 돼있지 않다. 목숨에 대한 애착을 떨어뜨리지 못했다. 날마다 알곡 한 톨과 한 방울의 물로 이어간 부처님의 6년 고행에 비하면 나는 너무 사치스럽다.”

해암은 오후 한 나절을 은봉암 법당 부처님 앞에서 안일한 자신을 참회했다. 천제굴로 돌아왔을 때는 땅거미가 깔리어 어두워지고 있었다. 사립문을 들어서자 성철이 말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노.”

“은봉암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거기, 밥값 못하는 중들 많대이.”

“지금은 주지스님만 있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은봉암 법당도 좌선할 만했습니다.”

성철은 해암의 마음을 간파한 듯했다. 해암이 불편해 한다는 것을 며칠 전부터 눈치 채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천제굴은 이제 시장바닥이 됐대이. 3천배를 시켜도 부산 마산 신도들이 찾아오니 어떡하겠나. 중노릇 잘하기도 참으로 힘든기라.”

“스님께서서도 더 깊은 청산으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더 깊은 청산은 마음속에 있으니 어디로 가겠노. 방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암자 틀레에 감옥소처럼 철조망을 둘러치거든.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올 겁니다.”

“천제굴에 철조망을 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아니다. 지형이 요새 같아야 하는기라.”

“스님, 그것은 과적이 하는 방편입니다.”

“하하하. 해암 수좌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기라. 나는 세상을 향해 철조망을 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철이 암자 틀레에 철조망을 쳤다고 할기라.”

성철은 3천배도 효과가 없으니 암자 틀레에 철조망을 치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천제굴은 철조망을 칠 수 없는 곳이었다. 아무리 철조망을 친진 두른 다 해도 암자 뒤에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지형이었다.

“성철스님, 저는 철조망을 두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려고?”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안 된대이. 북쪽은 위험하다카이. 목숨이 있고 나서 불법도 있고 우주도 있대이. 죽고 나면 모든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노.”

“참선수좌에게 목숨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생각하니 부끄럽습니다.”

“해암 수좌가 가고자 하는 데가 어디고?”

“오세암입니다.”

“공양은 어떻게 하고, 공비들이 진즉 다 털어갔을기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부만 하다 보면 천우신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즉생이제. 그기 진짜 수좌의 길이요, 법을 위해 몸을 버리는 위법망구(爲法亡身)의 일념인가!”

“죽을 각오로 공부하다 보면 제석천왕이나 호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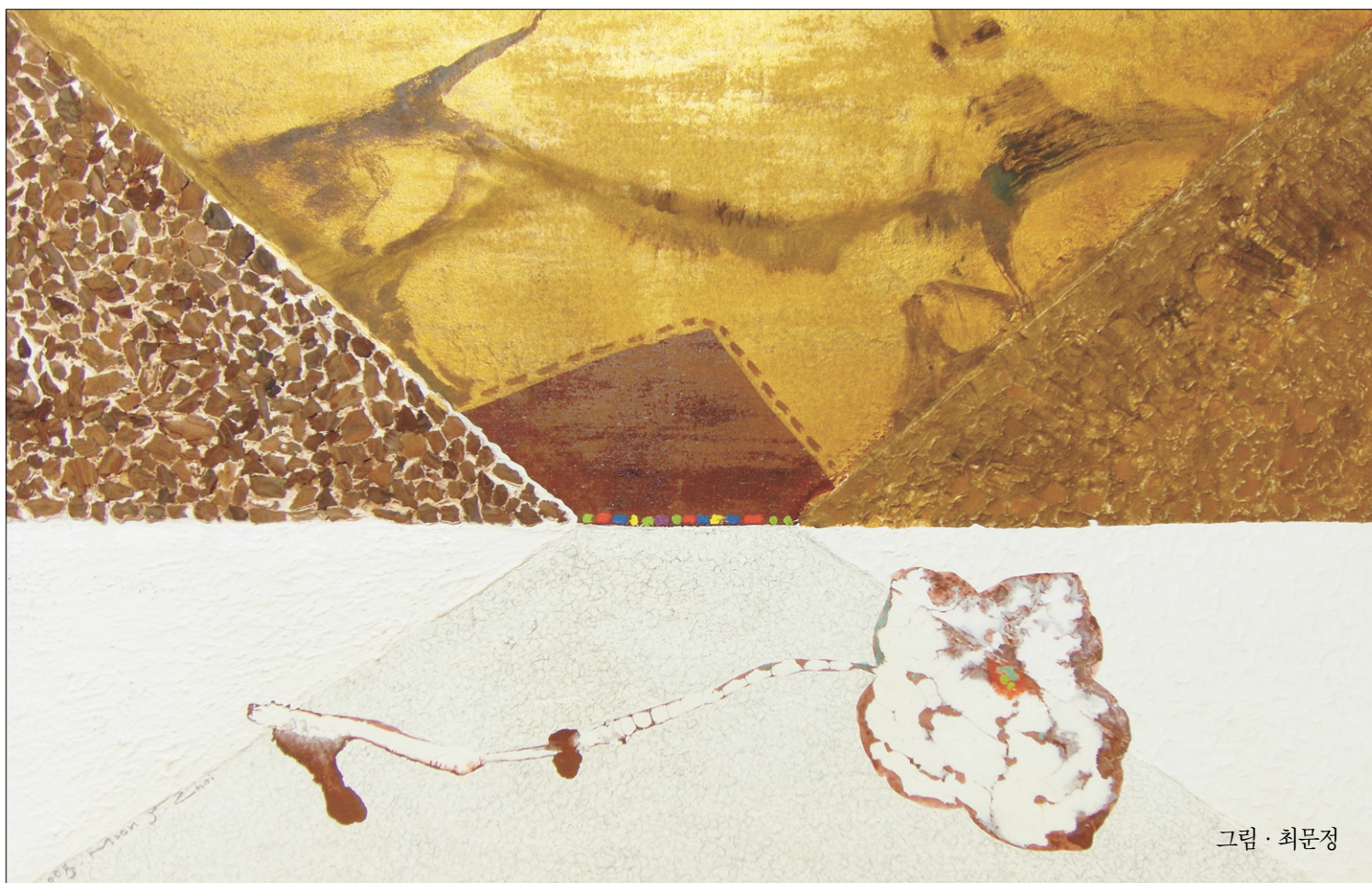


그림 · 최문정

설악산 오세암에서 생식하며 장좌불와

공비도 감동해 하안거 동안 불단에 식량 놓고가

신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죽을 자리를 가도 안 죽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암의 믿음은 확고했다. 훗날 제자들에게 계도 법문 중에 늘 강조하곤 했다.

“사람이 죽을지라도 가서 내가 요거 꼭 해낸다고 결심하면 안 죽고 그 일을 성공해요. 그런데, 아이고 무서우니까 못 하겠다, 고생스러우니까 못 한다, 피곤하니까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버리고 성공 못해요. 죽을 일이라도 끝내 버티면 천우신조로 이 천지 이치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적에 귀신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절대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고 가요.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가면 귀신들이 나에게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옳은 일을 하면 먹는 것이 내 뜻과 같이 돼버려요.”

“해암 수좌 말이 옳대이. 제석천왕 얘기는 참선하는 수좌라면 누구나 새겨들어야하는 기라.”

“오래 전 은사스님에게 들었던 제석천왕 얘기입니다.”

이후에도 해암은 제석천왕 얘기를 제자나 신도들에게 즐겨 들려주곤 했다. 죽을 각오로 공부하면 눈에 안 보이는 제석천왕이나 호법선장과 산신이 도와 준다는 오지의 얘기였다. 해암스님의 육성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다.

“옛날에 한 스님이 공부만 잘하면 하늘이 먹을 것을 갖다 준다는 말을 믿고 깊은 산골로 들어갔어요. 공부만 잘하면 제석천왕이 밥을 갖다 준다고 했으니까 부처님이 거짓말은 안 했겠지 하고 그냥 빈 몸으로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공부만 했는데도 제석천왕이 밥을 갖다 주지 않아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을 갖다 주지 않아요. 아, 부처님이 거짓말은 안 했을 건데 갖다 주지 않는 겁니다. 스님은 제석천왕이 밥 갖고 오는 것을 보려고 여기도 내다보고 저기도 내다보고 그랬대요.”

결국 스님은 사흘이 지나서는 ‘제석아, 제석아, 빨리 밥 가져오너라.’ 하고 소리를 쳤지요. 마침 그때 어느 마을의 부자가 잠을 자다가 어떤 스님이 깊은 산골에서 공부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부자는 이상하다, 하고 생각했어요. 다른 꿈과 달리 유난히 또렷하고 영롱했거든요.

부자는 허탕 칠 생각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꿈에서 본 산골로 갔다고 해요. 어디쯤 가는데 ‘제석아, 제석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오. 부자의 이름이 제석인 지라 자신을 부르는 곳으로 갔더니 한 스님이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스님은 부자인 제석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제석천왕을 부른 것인데, 딱 초화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공부하는 스님은 끝까지 부자를 제석천왕으로 알고 ‘사흘이나 굶기느냐’고 막 야단을 쳤답니다. 그래

서 부자는 자기 이름은 제석인데 현몽하여 이 산골까지 음식을 준비해서 왔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인연으로 부자는 스님에게 양식을 계속 대게 되었고, 스님은 마침내 공부를 잘하여 성불했다고 해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는 얘깁니다. 공부만 잘하면 천하가 하나로 통해버리니까요. 나는 이 얘기를 믿고 6.25전쟁 때 설악산으로 가서 공부했어요. 당시 설악산에 호랑이가 나오고 귀신이 산다고 했지만 정작 나는 그것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갑자를 좋아하는 멧돼지도 내가 심어 놓은 갑자는 해치지 않아요. 다른 논밭은 두둑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소나무 뿌리를 씹어놓고 가는데도 말이에요. 산짐승도 부처님이나 산신님이 스님을 것은 손대지 말라 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절대로 손대지 않거든요.”

결국 해암은 그해 봄이 가기 전에 천제굴을 떠나 설악산 오세암으로 갔다. 피난을 다니면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 속으로 자신을 던졌다. 오세암으로 가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인민군들에게 붙잡혀서 두 손이 묶인 채 총살을 당할 뻔도 했고, 또 한 번은 검문에 걸려 납북당할 뻔도 했으나 그때마다 위기를 넘겼다.

천신만고 끝에 찾았던 오세암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인민군이 빈 오세암을 찾은 해암에게 군인과 경찰의 철자라며 경계했다. 그러나 해암은 오세암의 방으로 들어가서 앉고 노지 소나무 그늘에서 하루 종일 참선을 했다. 비오는 날만 법당으로 들어가 정진할 뿐이었다.

구해은 풍과 솔잎으로 하루에 한 끼 생식을 하면서 장좌불와를 이어갔다. 그러자 며칠째 산속에 숨어 해암의 동태를 감시하던 공비가 감동했는지 자신이 먹을 식량을 법당 불단에 몰래 놓고 갔다. 하안거 동안 내내 식량을 불단에 올려놓고 갔다. 그러니까 해암을 해지려던 공비가 신장이 되고 산신이 되고 제석천왕의 역할을 한 셈이었다.<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제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신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동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5일(음 6.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8월 5일 ■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2009년 하안거 7일 동맹정진 7월 22일(음 6.1) 3시 ~ 29일(음 6.8) 3시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태도를 배우려면
몸을 버려 내두려하여
영기가 나타날도 수직을 막지어다
본뜻이 나타날은 그제야 도에이함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해암대종사 법어 -

해인사 원당암 강원 벽산 원각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